

개성있는 잣대 지닌 엄정한 비평

·한만수·황국명·서영채의 평론집을 읽고

방민호
문학평론가

지금 우리 비평이 처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지난 시기, 비평적 담론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아온 창작자들은 이제 비평가들의 발언을 냉소와 함께 대할 충분한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 이 여유는 창작자들로 하여금 때때로 비평가들의 게으름과 식견 부족을 공공연히 비판할 수 있게까지 해주었으니 그간에 이루어진 비평의 '영락'이 그리 작은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잡지사 등에서도 비평가들을 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졌다. 몇몇 예외가 없지 않으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평가들은 더 이상 문학과 문단에 질서를 부여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 출판사·잡지사들에 의한 비평가들의 전속화, 이것은 지금 비평가들 누구도 쉽게 부정하지 못할 문단적 현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평가들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더욱 더 멀어져버렸다. 독자들은 지금도 신문 광고나 책의 겉표지에 실린 비평가들의 찬사를 믿는 눈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짧은 현상들이 바로 그 신문과 그 책에 실려 있기 때문일 뿐이다. '전문적' 비평은 읽을 수도 읽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 독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아닐까.

비평적 기능이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비평의 평가적 기능, 비평가들의 엄정한 시선은 더 더욱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한 작품이고 유익한 작품이며, 올바른 작품인지를 판단하고, 그러한 평가를 공유하고자 하는 비평적 작업은 이 광포한 자본의 시대, 상업문학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커다란 힘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적 비평, 정론적 비평의 한계가 절실히 인식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것들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절대주의적 비평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옳다고 보는 것이 항구적으로 옳을 수는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또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도 좋은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결국 자신은 이것 외에



- 비평에는 흔히 해석하는
- 비평과 평가하는 비평이
- 있다고 한다. 두 방식
-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 평가하는 비평의 절실함을
- 주장하고 싶다. 세 개의 평론집은
- 모두 그러한 평가의 분명한
- 잣대들을 지니고 있다.

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옹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독단적인 비평, 절대적 비평이 지금의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것이다.

비평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못했고, 특히 최근 들어 아마추어적 비평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던 필자로서는, 근간에 간행된 몇몇 평론집들을 의무감을 수반하면서나마 볼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좋은 일이었다. 그 평론집들은 필자로 하여금 비평의 본래적 기능과, 특히 현재 강조되어야 할 비평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지금 필자 앞에 세 권의 평론집이 있다. 한만수의 《삶 속의 문학, 독자 속의 비평》, 황국명의 《떠도는 시대의 길찾기》, 서영채의 《소설의 운명》이 그것이다. 친근하고 명징하고 화려함. 그 각각의 평론집들에 대한 첫 인상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평론집의 주인들 중 두 사람을 이미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기도 했다. 그전부터 조금씩 느껴왔던 것이지만 그

들의 평론집은 그들의 개성을 배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가움이 지나가고 이들 평론집들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세계의 담론 구조들에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필자는 그것들 중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를 가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만수의 《삶 속의 문학, 독자 속의 비평》은 저널리즘 속에 존재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속된 본성에 저항하고자 하는 비평가의 고투를 보여준다. 58년생인 그는 매우 온 나쁘게도 민중문학론의 이론적 한계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해왔다. 그러면서도 그가 일찍부터 《빛진 자의 조급함과 빛 갇기의 효율성》과 같은, 민중문학론에 대한 반성 행위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온 나쁜 기자생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낡은' 민중문학론의 구조 속에서 그 시대적 한계를 조망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쉽게 감지되어 오는 시류의 변화에는 맞서고자 하는 의지는 그의 평론집이 지닌 중요한 미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개의 각기 다른 담론구조

이제 《소설의 운명》을 본다. 아주 오래 전 김남천의 평문 제목을 딴 이 평론집은 매우 낮익은, 그러나 누구도 본격적으로 기대지는 않았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미학을 통해, 90년대 비평의 새로운 담론 구조를 창출해내고자 한다. 그의 문장이 화려하다 못해 현란한 것은 창작 경험과 다양한 독서

행위를 통해 획득한 문학적 영감 때문이다. 이러한 영감은 그의 비평적 입각점을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근대성의 담론, 계몽의 담론에 두도록 해주며, 그의 비평적 행위를 시대정신의 자기 전개라는 헤겔적 논리에 따르는 관념적 진단으로 만들어 준다. 그 이론적 준거가 분명한 만큼 그는 90년대 문학을 조망하는 하나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그의 평문들을 현재를 진단하는 유효한 작업으로 위치시켜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국명의 평론집이 있다. 앞에서 필자는 이 평론집에서 명징함을 본다고 했지만, 그의 글들은 사실 읽는 이들에게 이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선사한다. 리얼리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는 해박하면서도 정연한 이해, 시대의 변화를 응시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냉철한 시선,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성실함 등. 그의 글들을 읽으며 필자는 그의 실제적인 작품 분석들 속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기는 했지만(예를 들어 <정화진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지하고자 하는 비평적 관점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권성우와 이광호의 비평행위를 분석, 비판한 <비평 전략의 새로운 과역설>은 꼭 한 번 읽고 넘어가야만 할, 메타 비평의 전형이 아닐는지.

비평에는 흔히 해석하는 비평과 평가하는 비평이 있다고 한다. 두 비평 방식이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재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감히 평가하는 비평의 절실함을 주장하고 싶다. 평가한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의 바다에 자기를 알몸으로 내놓는 행위이며, 그만큼 자기를 운명적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개의 평론집들은 모두 그러한 평가의 분명한 잣대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비평의 출발점일 뿐 그 올바른 징표는 될 수 없는 것. 중요한 것은 변화하되 한결같은 것, 한결같되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A5신/446면/9000원
《떠도는 시대의 길찾기》 세계사/A5신/338면/9000원
《삶 속의 문학, 독자 속의 비평》 나남/A5신/296면/8000원